

전주 미래 이끌 ‘청년 정책’ 강화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정기회의의 통해 5개 분야 67개 사업 시행계획 확정

전주시가 청년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청년희망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청년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청년이움전주’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정기회의’를 통해 ‘2025년도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2025년 청년희망도시 시행 계획은 △고용 △일자리 △주거·관계망 △문화·교육 △복지 △참여·권리의 총 5개 분야, 67개 사업 511억 37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고용·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 일자리 확대 및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구직청년 취업지원 강화 △청년창업가 발굴 육성 및 창업성장 프로그램 운영 등 34개 사업에 236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지역의 일자리 확대 및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구직청년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창업가와 청년 농업인을 육성 발굴하는 등 청년 고용 기회를 확대해 전주에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총 124억 4700만 원이 투입되는 주거·관계망 분야에서는 청년의 주



우범기 전주시장과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정기회의’를 통해 ‘2025년도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거비 부담 해소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청년 민원주택 ‘청춘 별채’ 사업과 공공매입임대주택, 사회주택, 청년 이음전주 운영 등 청년의 주거비용 경감 및 청년소통·교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6개 사업이 추진된다.

문화·교육 분야에서는 청년의 문화 예술 활동 참여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신진예술가 및 청년 예술가 활동지원 △창작활동 공간 지원 △미래인재 양성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한 10개 사업에 10억 7600만 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시는 올해 119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의 격정을 덜어주

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청년의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각 없는 촘촘한 청년복지 실현 등을 위한 복지 분야 11개 사업을 전개한다.

끝으로 시는 참여·권리 분야에 대해서는 청년이 주도하고 실행하는 참여기반 확대를 위해 △청년센터 확대 구축 및 소통교육 활성화 △청년자율 예산제 등 6개 사업에 20억 3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특히 시는 올해 전주를 청년이 정착하는 젊은 도시로 변화시키기 위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희망단 운영과 대학생 소통 간담회, 청년 참여예산 운

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에는 (가칭)청년정책국을 신설해 부서별로 산재된 청년정책을 일원화하고, 청년정책을 대폭 강화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주시 청년 인구는 전주시 전체 인구(63만1661명)의 26.8%(17만197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21년 18만1847명(전주시 인구의 28.6%)과 비교해 2% 감소한 것이다.

이에 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부족과 지속되는 고금리·고물가, 취업난 등 사회경제 전반의 위기의식 등이 청년 인구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청년들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안정적 삶 보장을 위해 전주시 청년정책의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청년들은 전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동력으로,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미래세대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젊은 전주, 희망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확대 추진하고, 더 많은 청년이 이러한 정책의 도움을 받아 전주에 거주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작가정원 공모 당선작 선정

전주정원산업박람회 전시 전문·시민작가정원 총 5개

오는 5월 전주월드컵광장에서 펼쳐지는 ‘제5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가 아름답고 창의적인 정원으로 더욱 풍성해진다. 시와 전주정원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정원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제5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에 전시될 전문작가정원 2개와 시민작가정원 3개 등 총 5개의 작가정원 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정원작가들이 설계한 아름답고 창의적인 정원이 선보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정원을 더욱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문작가정원의 경우 △천이팀(진소형, 김규성)의 ‘섬유림’ △푸르디팀(김재영, 김승규, 박지원)의 ‘배심대’ 등 2개 작품이 선정됐다. 또한 △식물집사팀(김성민, 이진혁)의 ‘시선’ △초록어게인팀(홍윤남, 강태현, 박영순)의 ‘아울 정원’ △그린오브제팀(양진용, 권영아)의 ‘담장 너머로’ 등 3개 시민작가정원도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전주정원문화센터에서 초록정원사와 전주에서 활동하는 정원해설사, 정원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정원산업박람회’ 작가정원 설계안 작품발표회’를 열고, 앞으로 조성될 정원의 설계안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공유했다. 작가정원은 정원산업 발전을 위해 산업전 참가업체가 보유한 식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성되며, 4월 한 달 동안 조성을 마친 후 박람회 기간 전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박람회 주제인 ‘우리의 정원, 우리의 도시, 우리의 내일’에 걸맞게 시민들 삶 속에 정원을 심을 생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월드컵광장에 조성되는 정원들이 시민과 관람객에게 정원문화의 정수를 알리고, 힐링의 기회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는 지난 6일 우정회 봉사단과 함께 덕진구 조촌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가구를 찾아 ‘드림하우스 제14호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 우정회 봉사단, 집수리 봉사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센터장 오은주)는 지난 6일 우정회 봉사단(단장 김용안)과 함께 덕진구 조촌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가구를 찾아 ‘드림하우스 제14호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집수리 대상자는 조촌동주민센터와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발굴된 주거 취약 가구로, 경제적 어려움과 고령으로 인해 자력으로 집수리가 힘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해왔다. 또, 화장실이 외부에 있어 안전 및 위생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주거복지센터는 우정회 봉사단의 집수리 자재 후원 및 재능 나눔(주)3수도 상하수도 전문기업의 자재 후원 등을 연계해 이번 집수리 봉사에

나섰다. 그 결과 해당 주택 내부에 화장실이 설치됐으며, △단열 보완 △외벽 보수 △보일러실 가림막 설치 등이 이뤄져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우정회 봉사단은 이날 점심시간에 동네 주민을 초청해 따뜻한 국수 및 새참 50인분을 함께 나누는 집수리 봉사 동네잔치도 펼쳤다. 오은주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장은 “소중한 재능 나눔과 후원이 있기에 소의계층 사각지대의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당부드리며, 주거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간부공무원 청렴 실천 다짐 · 서약식 가져

전주시 간부공무원들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시청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 없는 청렴한 전주 실현을 위한 ‘청렴 실천 다짐 및 서약식’을 가졌다.

이번 ‘청렴 다짐의 날’은 고위직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공직사회의 청렴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윤리를 되새기며, 청렴한 행정을 실천할 것을 서약했다.

정렴서약서에는 △공직사회 부패 척결 △음주운전 근절 △사의 추구 금지 △금품·향응 수수 금지 △부당 지시 금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시는 간부공무원들의 서약이 담긴 청렴서약서를 내부 업무망 등에 게시해 고위직 공무원의 청렴 의지를 대내외에 전파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함께라면’ 사업, 피자까지 확대

‘세대를 잇(EAT)다, 전주 함께 힘 피자’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가 1인 가구 등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기부캠페인인 ‘전주함께라면’ 사업을 라면과 카페에 이어 피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시니어클럽연합회는 7일 전주시장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전주시지역 3개 시니어클럽 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청소년을 위한 2025년 전주함께복지지원 사업인 ‘세대를 잇(EAT)다, 전주 함께 힘 피자’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니어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복지 시설에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는 사회적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업에 참여한 전주시시니어클럽(관장 김경옥)과 전주시니어클럽(관장 김효춘), 전주효자시니어클럽(관장 박

효순) 등 3개 시니어클럽은 화덕피자와 샌드위치, 전병 등 건강 먹거리를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 등 전주시지역 87개 아동 청(소)년 사회복지시설에 주1~2회 정기 제공하게 된다.

‘전주 함께 힘 피자’ 사업은 시민들의 정성이 모인 전주복지재단의 전주함께복지 지정후원금 약 1100만 원을 활용해 시행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누구나 놓고 가고 먹고 가는 나눔과 지원의 선순환 기반 사업의 취지를 이어 세대 간 연결을 강화하고, 시니어 시장형 일자리 활성화, 미래 사회의 주인공인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함께라면’ 사업은 누구나 먹고 가고, 누구나 놓고 가는 주민공유공간인 라면카페를 운영함으

로써 외부와 단절돼 어렵게 지내고 있는 이웃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주시 고유 복지안전망 구축사업이다.

‘전주함께라면’ 공간과 함께 전주시지역 6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초 청(소)년 기관 2개소(전주청소년센터, 청년식탁 사잇길)를 추가 개소해 현재 총 8개소가 활발히 운영 중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함께복지사업은 따뜻한 공동체 정신을 반영해 이루어 낸 전주시 고유의 사업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세 번째 사업은 어르신에게는 자립의 기회를,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세대를 아우르는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게 되어 매우 뜻깊은 출발이 될 것”이라며 “‘함께’라는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전주의 복지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진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남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들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